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북미 대학 중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2.08.28 ~ 2022.12.09				
- 작성방법: 최소 4페이지 이상 기술하되 후배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과 사진 첨부 - 비고: 작성 완료 후 빨간색 설명 부분은 삭제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먼저 수업은 총 크게 3과목으로 나뉘었습니다. 문법, 듣기/말하기, 쓰기/읽기 과목으로 하루에 약 5시간의 수업을 매일 들었습니다. 학기 시작 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레벨에 맞는 분반으로 자동 배정되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학기 중간중간마다 퀴즈나 과제가 많이 있어서 학기 중에 다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문법 책을 기준으로 몇 가지 주요 문법을 다루었는데 문법을 외우는 것 보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활용을 많이 하려는 느낌이었어서 문법이 약했던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두 개의 수업으로 나뉘었는데 TED 강연을 듣거나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었고 UF 학생들과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늘게 되었고 UF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발화량도 많이 늘고 생활 회화에 더욱 자연스러워 질 수 있었습니다. 쓰기와 읽기 수업을 통해서 어휘, 독해를 많이 배웠고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쓰기 뿐 만 아니라 문법도 함께 늘었습니다. 꽤나 많은 양의 에세이를 썼고 선생님께서 각자에게 자세하게 주시는 피드백으로 인해 저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수업 뿐 아니라 ELN에서는 매일, 매주 수업 후 활동을 준비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UF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였기에 다 함께 영어로 대화를 하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미국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하지 못할 경험들을 친구들과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 학기에는 여러 휴일이나 기념일이 많아서 할로윈 파티, Thanks Giving Day 식사, Home coming Day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가고 마켓도 방문하고 미식 축구 경기도 보면서 활동을 통해 미국 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2. 참가 성과 저에게 있어서 이번 어학연수는 영어에 재미를 붙여준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고등학교때부터 영어는 저에게 걸림돌이고 하기 싫은 공부였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극복하고자 어학연수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헛갈리던 문법들도 정확하게 알게되었고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인종, 문화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니 다양한 문화를 더욱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악센트 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 친구들의 발음을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듣기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지 친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처음엔 머뭇거리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배려해주고 잘 기다려준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띄게 회화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고 아무래도 매일 영어를 쓰다보니 어휘량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었습니다.

3. 소요경비

ex) 프로그램 비용,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용, 식비, 개인 경비(통신비, 여행비용 등) 등

프로그램 비용 : 약 500만원

항공료 : 약 300만원

보험료 : 약 70만원

숙박비용 : 매달 625달러 + 공과금 (약 20달러)

생활비 (식비 + 기타 생활용품) : 매달 약 600달러 (여행 경비 제외)

통신비 : 매달 20달러

4.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확실히 언어는 많이 쓸 수록 많이 노출될 수록 더욱 빨리 느는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학연수를 가는 것 자체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의 학교 생활에 달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교류를 할 수록 단순한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형식적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충분히 학습효과가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 배웠던 언어는 그들의 삶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언어도 좋지만 실제로 영어를 삶에서 쓰는 것은 그들의 삶을 배우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선택, 또는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폭 넓고 깊이 있는 선택과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5.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토익 800점 이상을 목표로, OPIC 또한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할 것 입니다. 또한 4학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전공 관련 공부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전공에서도 분야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분야 관련 교육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또한 자격이 되는 3월부터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진로계획

아직 두 분야 중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와 IT 인프라 분야를 둘 다 공부하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취업과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프로그램 또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 과정을 끝내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어학연수는 본인이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학연수가 영어를 많이 쓰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있기만 해서는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한국인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만 다니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그래도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동아리, 또는 다른 활동들을 통해 스스로 노력하는 태도가 있어야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지 교회를 다니고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계속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적어놓고 기억하곤 했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는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어학연수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8. 활동사진(2장 이상)





